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가 의류 처분 행동에 미치는 영향(제 1 보)

장 경 해 · 박 재 옥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The Effects of the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on the Clothing Disposition Behavior (Part I)

Geung Hae Chang · Jae Ok Par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1997. 5. 1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early understand the Korean consumer's socially responsible consumption attitude and disposition behavior through revealing by use Fishbein's Multi-Attributes Model as a conceptual fra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factors and disposition behavior pattern, and relations of demographic variable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adult females residing in Seoul. Judgment Sampling were performed twice during March of 1996 and total 549 sets of answer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result are following. First, by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side of socially responsible consumption attitude and disposition behavior, the attitude shows more economical disposition when consumers are in considerate about pre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clothing consumption and when consumers favor purchasing a second hand product. On the other hand, consumers' behavior shows more altruistic disposition, when they favor recycling and acquisition of second hand clothing and when not favor fashion. The result of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and demographic variables shows that income, age and education level relates to some intrinsic side of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On the other side,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consumers with relatively lower education normally practice economical disposition, while consumers with higher education level do altruistic disposition. Also, elder and married consumers tend to do more altruistic disposition.

I. 서 론

소비를 미덕으로 삼던 현대 산업 사회의 경제 구조는 소비의 급증과 자원의 남용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각종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되었다. 그 중 의류와 같은 소비재는 유행에 매우 민감한 상품이어서 생산업자나 유통업자들에 의해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를 초래, 단기간 사용후 쉽게 버리게 되어 많은 쓰레기를 유발, 자원 낭비 및 환경 보존상의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류와 같은 사용 가능한 제품의 재활용과 처분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간 사회심리학의 응용 분야에서 이루어진 환경에 대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socially responsible) 행동” 혹은 “사회 의식적인(socially conscious) 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대체로 사회 책임적 소비 행동을 인구 통계적 변인이나 인성 변인들을 가지고 사회 책임적 소비자를 확인하려는데 초점을 맞추었거나(Tucker, Dolich & Wilson, 1981), 또 심리학적 기법을 도입해 소비자 행동 촉진을 유발하기 위한 실험 연구들(e.g., Hopper & Nielsen, 1991; Arbuthnot, 1977)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외, 소비 행동의 한 하위 영역인 처분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처분 행동을 소비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보고, 처분 유형에 대한 개념적인 분류 연구(e.g., Harrell & McConocha, 1992; Hanson, 1980)를 한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의류학 분야에서 사회 책임적 소비 행동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써, 대표적 연구로는 미국의 Stephens(1985)이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 척도 개발에 주안점을 둔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를 한 것과, Shim(1995)이 환경 보존 태도와 처분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가 있다. 국내 연구로는 이춘희(1995), 김용덕(1995)에 의한 일반 환경 의식과 재활용 행동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책임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의 의류 제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에 대한 개발이나 구체적인 의류 소비 태도를 구성하는 내재적 차원과 처분 행동간

의 관계 혹은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소비 행동을 설명하는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 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과의 관계를 보다 특수한 소비 행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의류 소비 태도 및 행동에도 적용하여 보고자 하였다. 즉, Fishbein의 일원적 관점에서 다속성 태도 모델을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에 적용하여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내재적 차원들이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 행동 패턴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며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때 개인의 사회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 및 처분 행동 패턴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문헌 고찰

1. Fishbein의 다속성 태도·행동 이론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태도는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 중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 행동 모델은 태도를 중심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태도 변화를 행동 변화의 선행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Fishbein이 제안한 다속성 태도 이론의 기본적 원리는 각 속성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이 형성될 때마다 이러한 의견이나 생각과 관련하여 무의식 중에 각 속성 자체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Fishbein의 태도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 하겠다. 즉,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태도는 태도를 구성하는 내재적 속성들에 대한 평가의 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특정 이슈에 대한 내재적 차원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행동 설명력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하겠다.

그외, 태도·행동 연구에서는 태도가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예측 변인이기는 하나 특별한 행동 하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상황과 개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태도와 행동간의 인지 구조

및 인지 반응을 설명하는 Ajzen과 Fishbein(1977)의 확장된 이론들(e.g., 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도 태도 측정시 행위, 목표, 상황,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태도와 행동 사이의 일관성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상의 태도 행동 이론들에서는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도와 행동 그 자체에 대한 관계 파악과 함께, 상황에 관한 이해와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의 내·외적 요소를 이해함이 대상 그 자체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외에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사회 책임적 소비 태도와 처분 행동

1) 사회 책임적 소비 태도와 처분 행동

환경 문제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문제가 된 70년도 이후 처분 행동 연구도 소비자 행동 연구의 중요 측면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e.g., Jacoby, 1976; Nicosia & Mayer, 1976). Nicosia와 Mayer(1976)는 소비 행동을 구매 활동(buying activities), 사용 활동(using activities), 처분 활동(disposing activities)의 3가지 소비 활동으로 구분한 다음 처분 행동을 소비 행동의 일환으로 보았으며, 처분 활동을 “제품을 통하여 어떠한 목적을 충족시킨 후의 처리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Jacoby(1976), Burke, Conn과 Lutz(1978) 그리고 Hanson(1980)은 개별 소비자에게서 일어나는 내구 소비재의 처분 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을 소비자 행동 모델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식화하였다. Jacoby(1976)와 Hanson(1980)은 처분 의사 결정 과정 모델에서 객관적·심리적 상황 요인, 제품의 고유 특성과 같은 외부 자극 요인과 함께 의사 결정자의 내·외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개인과 가족 등의 인간적 요인도 처분 의사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처분 행동을 살펴봄에 있어 처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내·외재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봄은 의미있다 하겠다.

이후, Harrell과 McConocha(1992)는 소비자들 처

분 행동 측면에서 계획적인 처분자와 비계획적인(즉흥적인) 처분자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책임있는 처분 대안은 판매, 친지나 이웃에게 주거나 기부로 보았고, 무책임한 처분은 크게 보관과 폐기로 보았는데, 이러한 처분 행동 분류 유형은 개인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식적이고 일관성있는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소비의 의미를 인식하는 “사회 책임적” 혹은 “사회 의식적” 개념을 토대로 한 분류 유형으로 볼 수 있겠다.

앞서 살펴 본 소비자의 내구 소비재의 처분 의사 결정 모델에 관한 연구와 함께 환경을 의식한 사회 책임적 처분 행동에 대한 연구가 최근 대두되었다. 먼저, 사회 책임적 소비자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태도와 재활용 행동 변인들의 포괄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e.g., Schahn & Holzer, 1990; Arbuthnot, 1977)을 보면 환경에 대한 태도는 재활용 행동과 유의하게 관계가 있으며, 환경 관심 척도는 포괄적인 환경 행동 척도에 관련성이 있음으로써 환경에 대한 태도 변수는 환경 지향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책임적 태도와 환경을 보전하거나 향상하기 위해 수행된 행동과의 관계 연구에서도 “태도 변화를 행동 변화의 선행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겠다.

한편, 사회 책임적 소비 행동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처분 행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간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재활용 처분으로부터 유도해 낼 수 있는 개인 만족의 척도와 재활용 처분 및 구입 행동의 관련성 연구(De Young, 1986), 처분 행동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기초로 소비자들 처분 행동 측면에서 계획적인 처분자와 비계획적인 처분자로 구분하고 처분 행동의 차이를 살펴 본 연구(Harrell & McConocha, 1992), 그리고 소비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처분 행동에 관한 연구(정주원, 1993)에서 환경 의식 및 소비 태도는 재활용 행동 패턴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하여 책임있는 소비 태도를 가진 소비자는 처분 행동면에 있어서도 재활용 처분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선행 연구들로부터 환경에 대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의식이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 보존 측면에서 고취해야

할 선행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와 처분 행동

의류 소비 및 처분 행동을 환경에 대한 사회 책임적 견지에서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미국의 Stephens(1985)은 개인의 의류 소비에서 나타나는 사회 책임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고 의류, 의류 재활용, 유행,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 등 4차원의 25문항을 개발 하여, 이 척도로 사회 책임적 소비 행동을 살펴 본 결과, 사회 책임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 및 획득 행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Shim(1995)은 일반 환경 보존에 대한 태도와 폐품 및 의류 처분 행동 패턴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개인의 환경 보존에 대한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고 볼 수 있는 폐품 재활용 보다 환경 지향적인 의류 처분 행동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환경 문제 전반에 관련된 태도와 의복 관리 행동, 의류 자원의 관리 재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이춘희, 1995)와 환경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 의식과 행동 및 의복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김용덕, 1995)가 있으며, 이들 연구들은 환경 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의복 관리 행동, 의복 선택 기준 및 폐기 행동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환경 의식 정도에 따라 중고 의류 구매 및 폐기 행동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의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재활용 연구 결과들로부터,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 행동은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일반 환경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의류 재활용 행동을 살펴보고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의류 제품의 제품 특성을 고려한 사회 책임적 태도를 가지고 책임 있는 의류 소비 행동의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 환경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사회 책임적 소비 태도와 처분 행동을 확인함에 있어 사회 책임적 태도가 높은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로 나누어 이들간의 전체적인 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살펴 보았을 뿐(e.g., 이춘희, 1995; 김용덕, 1995; Stephens, 1985; Arbutnot, 1977),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를 구성하는 내재적 차원 및 행동 차원별 관계나 관련 변인들의 내재적 차원 각각이 사회 책임적 소비 태도나 처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약,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소비 태도나 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내재적 속성 각각이 재활용 행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또 각기 다른 행동을 유도하는 개인의 동기를 이해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설득 작전이나 태도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구 통계적 변수와 사회 책임적 처분 행동

인구 통계적 변수와 환경에 대한 사회 책임적 태도 및 소비 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면, Arbutnot(1977)는 재활용 센터 이용 의도의 가장 유력한 예측 변인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보고하였고, Harrell과 McConocha(1992)의 연구에서는 연령, 주택 거주 년수, 교육 수준, 자가 거주자, 가구원 수, 성별 등이 처분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 가사용 내구재의 처분 행동을 조사한 정주원(1993)도 인구 통계적 변수 중 학력, 소득, 연령의 변수가 처분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들로부터 인구학적 특징에 따라 처분 행동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인구 통계적 변수와 의류 처분 행동간의 관계 연구들을 살펴 보면, Fratzke(1976)는 개인의 인구 통계적 변인과 의류 처분 행동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연령, 직업, 집단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의류 사용 및 처분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Stephens(1985)은 개인의 의류 소비에서 나타나는 사회 책임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 책임적 소비 태도 및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나이, 수입원, 교육 수준, 정치 성향, 결혼 유무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외, Shim(1995)도 환경에 대한 태도, 폐품 재활용 행동 및 의류 처분시의 몇몇 재활용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데 있어 대학생의 성, 연령, 인종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중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로부터, 인구 통계적 변수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 처분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 연구 대상 품목이나 연구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의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 및 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보다 세분화된 특정 제품에 대한 인구 통계적 특성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의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회 책임적 태도의 내재적 차원(중고 의류 구입 태도, 의류 재활용 태도, 유행에 대한 태도,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이 처분 행동 유형(경제적 처분, 이타적 처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을 것인가를 Fishbein의 다속성 태도 이론을 토대로 연구코자 하였다.

연구 문제 1)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의 내재적 요인(중고 의류 구입 태도, 의류 재활용 태도, 유행에 대한 태도,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이 사회 책임적 처분 행동 패턴(경제적 처분, 이타적 처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2) 인구 통계적 변수(교육, 연령, 소득, 결혼 유무)가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의 내재적 요인(중고 의류 구입 태도, 의류 재활용 태도, 유행에 대한 태도,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3) 인구 통계적 변수(교육, 연령, 소득, 결혼 유무)가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행동 패턴(경제적 처분, 이타적 처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 의류 소비 및 처분 행동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으로 하였다. 표본 추출 방법은 본 연구자가 서울 시를 크게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하고 강남에서 4개동, 강북에서 4개동을 선택, 연령, 주거 지역, 소득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된 판단 표본 추출(Judgement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2차에 걸쳐 설문지 응답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예비 조사는 1996년 3월 10일부터 15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본조사 기간은 1996년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본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된 것이며, 본 조사에서 배포된 설문지는 600부이다. 그 중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560부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4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 보면 <표 3-1>과 같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연구의 변수를 중심으로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부분, 28문항, ②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 행동(경제적 처분, 이타적 처분)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 7문항, ③ 인구 통계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 8문항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척도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 척도는 Stephens(1985)

<표 3-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구 분		명(%)
교 육	중 졸	57(10)
	고 졸	145(26)
	대학 재학/졸	301(55)
	대학원 재학 이상	38(7)
	무 응 답	8(2)
계		549(100)
연 령	29세 이하	225(40)
	30~39세	157(40)
	40~49세	135(25)
	50~59세	27(5)
	무 응 답	9(1)
계		549(100)
소 득	120만원 미만	60(11)
	120~199만원	167(30)
	300~499만원	102(19)
	500만원 이상	38(7)
	무 응 답	31(6)
계		549(100)
결혼유무	기 혼	339(62)
	미 혼	196(36)
	무 응 답	14(3)
	계	549(100)

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수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5점의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tephens의 척도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 척도가 우리 나라에서도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 4인에게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 척도의 주요 요인과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그 결과, Stephens의 척도에서 의류 소비 태도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중고 의류, 의류의 재활용, 유행,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 등 4가지 구성 영역 및 문항이 우리 나라 소비자의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그의 척도 대부분(23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의류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Stephens의 척도는 우

리 나라 현재의 실정에 사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 조사 및 본조사 결과에서 사용한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 척도도 Stephens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4개의 내재적 차원으로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 이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는 요인별로 각각 .79, .74, .71, .58로 나타났고, 이 4개의 요인이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분산 비율은 48.9%로 나타났다. 각 요인과 측정 변수간의 관계에 대해 요인 1은 중고 의류 구입 태도, 요인 2는 의류의 재활용, 요인 3은 유행에 대한 태도, 요인 4는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으로 명명하였다<표 3-2>.

2)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 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류 처분 행동의 척도는 그간의

<표 3-2>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의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요 인		사회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 문항	요인 부하량				공통 분산치
요인 I	중고 의류 구입 태도	· 중고의류 구입에 흥미가 없음	.75	-.18	-.01	.32	.59
		· 중고 가게에서 중고의류 구입할지 의문	.70	-.16	.06	.24	.58
		· 품질을 판단할 수 없어 중고의류 구입안함	.70	-.29	-.03	-.03	.57
		· 어울리는 옷이라면 중고 가게에서 구입할 용의 있음	.67	.19	-.06	-.01	.49
		· 중고의류 더럽거나 비위생적임	.66	.10	-.13	.25	.52
		· 바자회에서 중고의류 구입은 부끄러운 일	.49	-.17	-.09	.31	.37
요인 II	의류 재활용 태도	· 의류 재활용은 바람직함	-.10	.69	.01	-.10	.49
		· 의류 재활용을 권유해야 함	-.20	.67	.05	.02	.49
		· 의류도 자원인데 낭비되어지고 있음	.00	.65	.03	-.06	.41
		· 현 옷을 받아 입는 것은 바람직함	-.14	.61	.11	-.07	.45
		· 의복 재활용 방법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33	.56	-.04	-.14	.45
		· 재활용 바자회 의류 구매는 바람직함	-.36	.53	.08	-.07	.43
요인 III	유행에 대한 태도	·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안됨	-.04	.08	.78	-.11	.63
		· 의복 선택시 다른 사람 스타일 고려 않함	-.00	-.08	.71	.06	.51
		· 유행을 따르는 것은 비실용적임	.13	.17	.63	-.01	.44
		· 유행과 옷을 없애는 이유와는 상관이 없음	-.06	-.06	.61	.18	.41
		· 최신 유행옷 구입에 많은 돈 지불용의 있음	.20	-.11	-.59	.21	.44
		· 최신스타일을 입는 것은 어리석음	.07	.40	.44	-.27	.43
요인 IV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	· 의류 소비시 자원 보존 요청 않아도 됨	.10	-.06	.08	.75	.59
		· 자원 보존과 의류 소비 관계가 없음	.07	-.19	-.04	.71	.54
		· 현옷의 재활용은 그 가치에 비해 귀찮은 일	.36	-.07	-.11	.60	.50
고유치 (Eigenvalue)			4.85	2.46	1.65	1.35	10.29
분산 설명력 (%)			23.10	11.60	7.80	6.40	48.90
신뢰도 계수 (α)			.79	.74	.71	.58	

연구에서 사용할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선행 연구에서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을 분류한 개념과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새로이 작성하였다. 처분 행동의 개념 규정 및 분류를 위하여 먼저, 소비 제품 처분 행동의 유형을 재활용과 비재활용으로 구분한 Burke, Conn Lutz(1978), De Young(1986), 그리고 Harrell과 McConocha(1992) 등의 개념을 기초로 의류 처분 행동을 재활용과 비재활용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처분 동기의 관점에서 재활용은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처분 행동인 경제적 처분과 이타적 처분으로 나누었고, 비계획적인 비재활용 처분 행동은 보관과 폐기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 있는 처분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경제적 처분은 중고 의류를 판매, 물물교환 또는 다른 용도로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였고, 이타적 처분으로는 친지나 이웃에게 그냥 주거나 교회나 자선 단체에 기증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Burke, Conn과 Lutz(1978)의 연구에서 다른 처분 분류 유형의 기준에다, 의류라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처분의 구성 요소에 VeVerka(1976)가 영구 처분 구성 요소로 다른 '다른 용도로 사용(개조, 조각, 어린이 옷)'도 경제적 처분에 포함시킨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다른 척도와 마찬가지로 5점의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지수 그렇게 한다)를 사용하였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방법은 먼저 척도의 타당도 검증(Validity Test)을 위해서는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을 위해서는 크론바 알파(Cronbach α)를 구하였다. 그리고 연구 문제의 검정을 위해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와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 행동의 관계

연구 문제 1의 검정을 위하여,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 변수군을 독립 변수로 하고 경제적 처분 행동과 이타적 처분 행동을 각각 종속 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1). 먼저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의 내재적 요인(중고 의류 구입 태도, 의류 재활용 태도, 유행에 대한 태도,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은 사회 책임적 처분 행동 중 경제적 처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F=4.81, p<.001$), 이들 4개의 요인들이 경제적 처분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분산 비율은 5%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들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경제적 처분 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T=2.38, p<.05$)와 중고 의류 구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T=-3.00, p<.01$)였다. 각 독립 변수들의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통하여 이들 각각이 경제적 처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면, 중고 의류 구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beta=-.14$),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beta=.02$) 순으로 경제적 처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준화된 회귀 계수의 방향을 고려하여 이를 해석하면, 의류 소비에 있어 자원 보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를 보일수록, 그리고 중고 의류 구입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경제적 처분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him(1995)의 연구에서 중고 의류 구매 행동은 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금전 혹은 경제적인 이유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보고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1>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와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 행동간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 (N=549)

종속 변수	경제적 처분 행동		이타적 처분 행동	
	표준화된 회귀 계수	T	표준화된 회귀 계수	T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요인 4)	.11	2.38*	.04	.85
유행에 대한 태도(요인 3)	.07	1.51	.15	3.27**
의류 재활용 태도(요인 2)	-.06	-.14	.20	4.40***
중고 의류 구입 태도(요인 1)	-.14	-2.88**	.02	.37
R ²	.04		.06	
F	4.81***		7.81***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를 구성하는 내재적 요인들 즉, 중고 의류 구입 태도, 의류 재활용 태도, 유행에 대한 태도,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를 구성하는 독립 변인들은 이타적 처분 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7.81, p<.001$). 그리고 이들 독립 변수들이 이타적 처분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분산 비율은 6.2%로 나타났다. 각 독립 변수들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유행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T=3.27, p<.01$)와 의류의 재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태도($T=-4.39, p<.001$)가 이타적 처분 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들 각 독립 변수들의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통하여 이들이 이타적 처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의류의 재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태도($\beta=.20$), 유행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beta=.15$)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회귀 계수의 부호를 고려하여 해석하면, 유행지향적 의류 소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또, 의류 재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실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처분 행동에 있어 친척이나 이웃 등 아는 이에게 의류를 그냥 주거나 교회나 자선 단체에 기증하는 이타적 처분 행동을 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의류 처분 행동 패턴이 다른 사람의 경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의 내재적 속성에 각기 달리 반응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는 Stephens(1985)의 경우가 총체적인 사회 책임적 태도와 행동간의 관련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면, 본 연구 결과 재활용 행동의 유형에 따라 태도를 구성하는 각각의 내재적 요인별 세부적 관계 규명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행동 유발을 모색할 수 있겠다.

2. 인구 통계적 변수와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간의 관계

연구 문제 2 즉, 인구 통계적 변수가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의 내재적 요인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2). 인구 통계적 변수(교육, 연령, 소득, 결혼 유무)는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의 내재적 차원 중 중고 의류 구입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F=2.66, p<.05$), 이들 독립 변수들이 중고 의류 구입 태도(요인 1)를 설명할 수 있는 분산 비율은 3%로 나타났다. 또 각 독립 변수들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소득만이 중고 의류 구입 태도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2, p<.01$). 이들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통하여 설명하면, 소득이 중고 의류 구입 태도를 설명하는 β 값은 .14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중고 의류 구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구 통계적 변수(교육, 연령, 소득, 결혼 유무)는 의류 재활용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F=4.83, p<.001$), 이들 독립 변수들이 의류 재활용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분산 비율은 5%로 나타났다. 또, 각 독립 변수들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연령만이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이를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통하여 의류

<표 4-2>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와 인구 통계적 변수간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 (N=549)

독립 변수	중고 의류 구입 태도 (요인 1)		의류 재활용 태도 (요인 2)		유행에 대한 태도 (요인 3)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 (요인 4)	
	표준화된 회귀계수	T	표준화된 회귀계수	T	표준화된 회귀계수	T	표준화된 회귀계수	T
교육	.01	.14	.11	1.71	.13	1.96*	-.13	-1.85
연령	.01	.15	.19	3.64***	-.01	-.23	-.10	-.07
소득	.14	2.82**	-.07	-1.40	-.16	-3.32***	-.003	-1.92
결혼유무	.07	.91	-.07	-1.01	.04	.63	.11	1.48
R ²	.02		.04		.06		.02	
F	2.66*		4.83***		8.06***		2.40*	

*p<.05, **p<.01, ***p<.001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연령이 의류 재활용 태도를 설명하는 β 값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의류 재활용 처분 및 회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tephens (1985)의 연구에서 사회 책임적 태도 및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비교적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외, 인구 통계적 변수가 유행에 대한 태도(요인 3)에 미치는 영향력의 검토에서 이들 각 독립 변수는 유행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8.06, p<.001$), 이들 독립 변수들이 유행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분산 비율은 8.1%로 나타났다. 또, 각 독립 변수들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소득($T=-3.32, p<.001$)만이 유행에 대한 태도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통하여 그 설명력을 살펴 보면, 소득이 유행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β 값은 $-.1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유행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적 변수가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요인 4)에 미치는 영향력 검토에서 이들 독립 변수들은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F=2.40, p<.05$), 이들 독립 변수들이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을 설명할 수 있는 분산 비율은 2.4%로 나타났고, 인구 통계적 변수들의 개별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통계적 변수가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에 대한 소비 태도를 설명하는 적합한 변인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 인구 통계적 변수와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 행동간의 관계

연구 문제 3의 검정을 위해, 경제적 처분 행동과 이타적 처분 행동을 각각 종속 변수로, 인구 통계적 변수(교육, 소득, 연령, 결혼 유무)를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3).

인구 통계적 변수(교육, 연령, 소득, 결혼 유무)가 경제적 처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검토에서, 이들 독립 변수는 경제적 처분 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F=9.72, p<0.001$), 이들 독립

<표 4-3> 인구 통계적 변수와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 행동간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

(N=549)

독립 변수	경제적 처분 행동		이타적 처분 행동	
	표준화된 회귀계수	T	표준화된 회귀계수	T
교육	-.21	-3.71***	.02	.32
연령	.12	1.57	.15	1.98*
소득	-.03	-.67	.05	1.08
결혼유무	-.12	-1.7	.14	2.1*
R ²	.05		.06	
F	7.42***		8.24***	

* $p<.05$, *** $p<.001$

변수들이 경제적 처분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분산 비율이 5%로 나타났다. 또, 각 독립 변수들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교육($T=-3.71, p<.001$)만이 경제적 처분 행동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통하여 설명하면, 교육이 경제적 처분을 설명하는 β 값은 $-.2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처분을 하는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평소 판매, 물물 교환 등의 경제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rrell과 McConocha(1992)의 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이 보관 및 폐기 등의 비재활용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결과와 정주원(1993) 연구에서 학력과 더불어 소득 및 종교의 유무가 재활용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상치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인구 통계적 변수(교육, 연령, 소득, 결혼 유무)가 사회 책임적 처분 행동 중 이타적 처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9.34, p<.001$). 또 이들 독립 변수들이 이타적 처분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분산비율은 6%로 나타났다. 각 독립 변수들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결혼 유무($T=2.1, p<.05$), 연령($T=1.98, p<.05$)은 이타적 처분 행동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독립 변수들의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통해 영향력을 살펴 보면, 연령($\beta=.15$), 결혼 유무($\beta=.14$) 순으로 이타적 처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결혼을 했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남에게 그냥 주거나 자선 단체에 기증하는 이타적 처분을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ratzke(1976)의 연구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가정에 의복을 양도하는 처분 방법을 더 좋아한다고 한 결과와, Shim(1995) 연구에서 나이가 많은 학생이 나이가 어린 학생에 비해 기증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젊은층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안정감은 보다 이타주의적인 성향을 띄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기혼자인 경우도 여대생이나 미혼 여성에 비해 불우 이웃이나 남을 고려한 이타적 처분을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V. 결 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와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 행동의 각 요인별 세부적인 관계를 살펴 보면, 의류 소비자 자원 보존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를 보이는 소비자일수록 중고 의류 구입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소비자일수록 경제적 처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류의 재활용 처분과 획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일수록, 유행에 대해 비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소비자일수록 이타적 처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의 내재적 차원에 따라 의류 처분 행동 패턴이 달라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인구 통계적 변인(소득, 연령, 교육, 결혼 유무)과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간의 관계 분석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중고 의류 구입에 비호의적인 반면, 유행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의류의 재활용 처분과 획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의 내재적 요인별 영향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구 통계적 변수와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이들 변수간에는 교육, 연령, 결혼 유무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즉, 교육 수준이 낮은 소비자일수록 경제적 처분을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또, 기혼자의 경우 이타적 처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처분 행동 유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2. 제 언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의류 재활용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와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 행동과 관련하여, 중고 의류 구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일수록 경제적 처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류 재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수록, 유행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소비자일수록 이타적 처분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를 구성하는 각 요인에 따라 처분 행동 패턴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처분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중고 의류 구입에 대한 인지와 필요성 등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태도 변화와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하고, 이타적 처분 행동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재활용 처분을 해야 하며, 무분별한 유행지향적 태도가 얼마나 환경과 자원 보존에 해를 미치는지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태도 변화와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인구 통계적 변수와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중고 의류 구입에 부정적인 반면, 유행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집단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부녀 회장, 반장이나 통장 등을 통해 인적 비인적 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환경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소비 태도를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인구 통계적 변수와 사회 책임적 의류 처분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처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력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는 동사무소나 부녀회, 소비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의류 수거 행사 참여시 쓰레기 수거 봉지, 무공해 세제나 재생 휴지 같은 경제적 보상을 다양하게 제공하면 그들의 행동을 의류 재활용 처분으로 유도할 수 있겠다. 반면, 연령이 높은 소비자일수

록 기혼자의 경우 이타적 처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 이상의 주부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동 주택이나 단독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는 불우 이웃 돕기 의류 바자회나 외국 난민 돕기 자선 의류 수거 행사를 강화할 수 있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보다 신뢰할 만한 표본 추출을 통해 우리 나라 소비자의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 및 행동을 살펴 보아야 하겠고, 둘째, 본 연구의 중변인 중의 하나인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 척도는 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우리 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태도의 구성 영역이나 주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더 정교화 되고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질적인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우리 나라에서 의류 재활용 처분이 좀더 정착되어진다면 중고 제품의 구매 태도 및 행동을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여 중고 의류 시장의 상업적 활성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용덕(1995). 소비자의 환경 의식에 따른 의복 구매 행동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2) 이춘희(1995). 소비자의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의복 관리 행동과 의류 자원 재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3) 정주원(1993). 소비자 처분행동 유형과 영향 변수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4) Ajzen, I., & Fishbein, M. (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 888-918.
- 5) Arbuthnot, J. (1977). The Roles of Attitudinal and Personality Variables in the Prediction of Environmental Behavior and Knowledge. *Environment and Behavior*, 9, 217-232.
- 6) Burke, M., Conn, W.D., & Lutz, R.J. (1978). Using

Psychographic Variables to Investigate Product Disposition Behaviors. *proceedings of Educators Conferenc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321-326.

- 7) Fratzke, D.M.L. (1976). *Clothing values as related to clothing inactivity and discard*.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 8) Hanson, J.W. (1980). A Proposed Paradigm for Consumer Product Disposition Proces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Summer, 49-67.
- 9) Harrell, G.D. & Mcconocha, D.M. (1992). Personal Factors Related to Consumer Product Disposal Tendenci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6(2), 397-417.
- 10) Hopper, J.R., & Mccarinielsen, J. (1991). Recycling as Altruistic Behavior Normative and Recycling Program. *Environment and Behavior*, 23, 195-220.
- 11) Jacoby, J. (1976). Consumer Research: Telling It Like It I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 1-11.
- 12) Nicosia, F.M., & Mayer, R.N. (1976). Toward a Sociology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5-75.
- 13) Schahn, J. & Holzer, E. (1990). Studies of Individual Environmental Concern: The Role of Knowledge, Gender and Background Variables. *Environment and Behavior*, 22, 767-786.
- 14) Shim, S. (1995). Environmentalism and Consumer: Clothing Disposition Patterns: An Exploratory Stud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1), 38-48.
- 15) Stephens, S.H. (1985). *Attitude Toward Socially Responsible Consumpti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and Investigation Relationships to Clothing Acquisition and Discar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16) Tucker, L.R., Dolish, I.J. & Wilson, D. (1981). Profilling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s-Citizens.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Fall, 326-340.
- 17) VeVerka, M.T. (1974). *Inactive Clothing of Slected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